루터: 갈라디아서의 논점

루터(M. Luther)는 그의『갈라디아서의 논점』이라는 저술에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교리, 즉 그리스도인의 의(義)에 관한 교리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즉 믿음 - 신앙의 의(義) 또는 그리스도의 의(義)는 이 세상의 의(義)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주신『**수동적인 의**(義) - passive righteousness』라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것도 행한 것이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아들일 뿐이다.

이 의(義)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의 완전한 의(義)를 우리에게 모두 전가시키셨으며,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원이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고전 1:30). 우리는 이미 심판과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롬 6:14).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의 의(義), 즉 세상의 의(義)에 집착하도록 유혹하며 질책하고 또 송사한다. 율법의 의(義)는『**능동적인 의**(義)』이다. 율법은 비록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이로되, 우리 양심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슬프게 하며 절망하게 한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는 극단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킬 능력을 얻지는 못한다(롬 3:20).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의 양심을 질타하며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한다. 율법의 의(義)를 의지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도무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義)로는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로만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힘있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의 교리(doctrine of th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핵심적인 교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며, 또 갈라디아서의 중심사상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의(義)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평안을 누린다. 죄의 용서, 평안, 안정, 행복,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평화와 의(義)의 왕, 고마우신 구세주요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는 복음의 바르고 순결한 교리와 수동적인 의(義)의 지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키신다. 그리스도의 의(義)를 소유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소명을 수행하며 또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복종시킨다.